

고난의 직면에서 참된 회복으로

본문: 창세기 42:1-1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ZmGloUtEke8?si=h9ArZ3T1QcMCnXHj>(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극심한 기근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멈춰 서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식이 바닥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유일한 곡식 창고인 '애굽'은 20년 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범죄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죄책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삶의 압박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억지로 이끄십니다.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죄와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삼 일 동안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철저한 낮아짐과 답답함을 허락하십니까? 평안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개입입니다. 감옥의 바닥에서 20년간 무너졌던 그들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기근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재난이 아닙니다. C. S. 루이스의 고백처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 119:71)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병든 우리 내면을 수술하시고 영적 무기력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형들의 실수와 죄악 너머에서 꿈과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피하고 싶던 내면의 아픔과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회복시키시고 완성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살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양식이 떨어진 기근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무엇이라며 책망하니까? (창 42:1)
2. 요셉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창 42:17)

[삶의 적용]

1. 내 삶에 찾아온 '기근(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의 아픔이나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2. 답답한 감옥 같은 고난 너머에서 마침내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피하고 싶던 내면의 아픔과 죄를 십자가 앞에 담대히 직면하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참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